

HD현대

2024 가을호



Contents

2024 AUTUMN



06

HD 하이라이트



10

HD 돋보기



26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



30

오피스 인터뷰



35

그리운 이름, 아산



46

로컬 재발견

FOCUS

04 프롤로그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06 HD 하이라이트

“HD현대 AI, 어디까지 왔나?”

HD INSIDE

10 HD 돋보기

HD현대 잇단 수상
가스텍 2024 참가
HD안전페이
카젠 앰버서더 발대
생산 공장 잇단 확충
새로운 가족, HD현대마린엔진
그룹사 소식

18 미래를 여는 HD

대형액화수소운반선 수소엔진
웨어러블 로봇, 조선소와 만나다

21 스타(★) 플레이어

전성국 대한민국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3인방
기술사 합격 사우 5인

26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

30 오피스 인터뷰

HD한국조선해양 DT혁신실 DT솔루션팀

32 미라클 HD

장애인 일자리 창출
HD현대희망재단 출범

35 그리운 이름, 아산(峨山)

정주영 창업자,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

36 HD SNS 픽

THE HD STORY
오일전사

38 우리네 이웃

울산 HD FC & 현대예술관

REFRESH

40 인사이드

건강 칼럼
마음 컨설팅
사랑을 나눕시다

46 로컬 재발견

충북 영동 산골마을

50 HD 툰(TOON)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1~2

54 사우 참여마당

여름휴가 사진 공모전 우수 사진
HD현대 가족 글마당
가을호 퀴즈

HD현대 가을호

발행일 2024년 10월 17일(목)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AI는 조수인가, 동반자인가, 아니면 경쟁자인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작업 수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의성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인간과의 복잡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AI,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의 진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다. 전통적으로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신해왔다. 예를 들어, 기종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선박은 사람과 짐을 운반한다. 반면, AI는 이러한 기계에 인간의 지능에 해당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로,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기종기가 사람의 조종 없이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거나, 기존에 일주일 이 걸리던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든다. 즉, AI는 기계가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갖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최근 AI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의사처럼 환자의 사진을 분석해 병을 진단하는 AI, 알파고처럼 바둑을 사람보다 잘 두는 AI, 그리고 자율주행차처럼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AI가 등장했다.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고, 글을 작성하며, 그림을 그리는 챗GPT와 같은 AI도 등장했다. 이러한 AI의 발전 배경에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람이 기계의 지능을 프로그래밍했지만, 이제 AI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

AI의 학습과 데이터의 중요성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기존 업무를 AI화하려면, 사람이 하던 작업과 의사결정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의 전문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암 여부를 판단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AI는 의사처럼 엑스레이를 분석해 폐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초기에는

데이터가 적어 정확도가 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AI는 결국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를 사람 대신 판단하는 일을 AI가 수행할 수 있다. 제품의 모양, 무게, 크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망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 불량품이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AI가 데이터를 통해 습득한 결과이다.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AI는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선박 정박과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도, 다양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AI가 이를 학습하면 인간 항해사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 정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과 발전

최근 AI는 판단 능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한 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생성형 AI'라고한다. 예를 들어, 칸트의 철학적 글을 학습한 AI는 칸트의 문체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피카소의 그림을 학습한 AI는 피카소의 화풍을 모방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더 나아가 AI는 전 세계 철학자들의 글을 학습하여 새로운 철학적 담론을 생성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학습해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문서를 학습했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물론, AI가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AI는 기존 기계에 장착되어 시각(눈), 청각(귀), 언어(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각과 언어 능력은 AI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며, 자율주행차에서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통해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AI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을 운전한다. 또한, 자동차가 스피커(입)와 마이크(귀)를 장착하면 AI는 승객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AI는 주로 인간의 눈, 귀, 입 역할을 하지만, 로봇이 손과 발을 갖추면 AI는 로봇에게 지능을 부여하여 물리적 행동을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AI 로봇은 사람처럼 지능적이면서도 육체적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간과 유사한 신체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사람처럼 똑똑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다면, AI는 정신적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 노동까지 대체하게 되어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AI와의 공존: 새로운 역할 찾기

이처럼 AI가 발전하면 인간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당장은 아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 AI가 특정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AI는 주어진 작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인간의 몫이다. AI가 더 발전하면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찾아내는 데 AI보다 뛰어날 것이다.

다만, AI의 발전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AI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I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새로운 역할이 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갈등이 있었다. 특히,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기술은 항상 논란을 일으켰다. AI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기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며, 개인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늘 기회와 발전이 함께 있었다. AI는 우리의 조수이자 협력자일 수 있으며, 때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AI는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공존할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멘스(Siemens)의 짐 스나베(Jim H. Snabe) 회장은 최근 한 AI 포럼에서 ‘AI Transformation’의 핵심은 ‘규모’보다는 ‘속도’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지난 2022년 AI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조선해양·에너지·건설기계 등 각 사업에 빠르게 적용하고, 직접 수립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인터뷰 HD현대 최고AI책임자(CAIO) 김영욱 상무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HD현대에 합류한 이후 HD현대 AI전략팀 및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 내 소속된 AIC(AI Center)를 이끌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에 소속된 80여명의 AI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3개의 연구실로 나뉘져 근무하고 있으며, 그룹의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HD현대 소속의 AI전략팀은 각종 AI 전략을 구상하고 각 실행 플랜들과 잘 연계되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D현대 AIC는 AI를 혁신 동력으로 삼아 그룹의 실질적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AI Transformation’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와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전반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커뮤니티 운영, HD현대-서울대 AI 포럼, 재직자 대상 서울대 AI 고급과정 교육 등 직원들의 AI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 업무 특성상 ‘현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AI Transformation’이 현장에서 단지 키워드 정도가 아닌 실제로 와 닿을 수 있도록 ‘Applied AI’ 중심의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plied AI는 AI를 특정 문제 해결에 이용하거나 실제 비즈니스 및 산업의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AI 개발 과제들이 자칫 연구를 위한 연구용으로 남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AI 과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현장 사용자와 AI 연구자 간 기대치를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D현대의 AI 기술 활용 수준이 전자, 전기, 자동차 등 타 직종 회사들보다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HD현대의 AI 기술은 동종업계 대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에서는 그룹의 제품, 공장, 기업에 모두 AI를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는 AI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에서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기술에 대한 *Time To Market’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기적으로 Use Case(AI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AI 기술 경쟁에서 선두에 서며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Time To Market** : 한 제품의 컨셉 개발부터 완제품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AI',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HD현대에 무슨 AI 개발자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지만 HD현대는 2년 전부터 AI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조선·기계·에너지의 세계에 어떻게 AI가 스며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바다의 네비 '오션와이즈' 솔루션

일반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달리 바다에는 신호등과 차선, 표장도로가 없다. 연료 효율과 속도를 고려한 최적 경로를 선정하려면 선장의 노하우에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최적 경로는 출발 및 도착 일정, 날씨, 항로, 선박 종류, 화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한국조선해양 AIC와 함께 지난 2023년 1월 다양한 요소를 AI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주는 '오션와이즈(OceanWise)' 컨셉을 확정하고 개발을 시작해 바닷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바다용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오션와이즈는 AI와 빅데이터

를 활용한 HD현대마린솔루션의 대표 탈탄소·경제운항 솔루션이다. 오션와이즈의 최적 경로 계산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외부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선박의 위치정보만으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 및 예측하는 이 기술은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최적 경로를 제시한다. 또한, 선박의 실제 운항 데이터가 쌓일수록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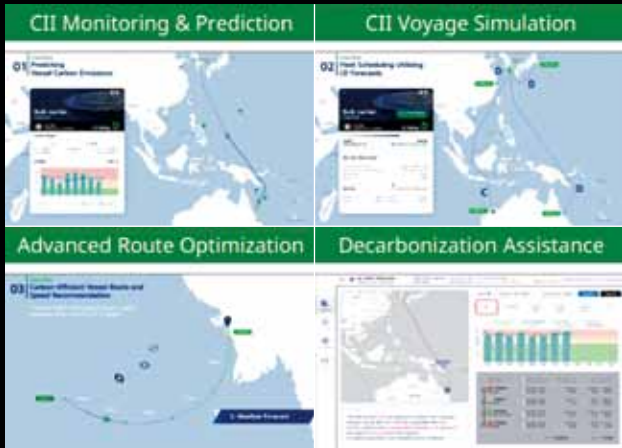
올해 2월에는 이미 포스코와 상업 공급도 체결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포스코에서 철광석 및 석탄 등 원료도입을 위해 운송 중인 건화물선에 대해 CII(Carbon Intensity Index: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II등급 모니터링 기능', '운항 전 CII 등급 시뮬레이션 기능', '최적 항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해당 계약 체결로, HD현대마린솔루션은 탄소 배출량 관리와 저감을 위한 오션와이즈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했고, 고객층을 기존 선사 중심에서 대형 화주로 확장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HD현대는 지난 7월, 해운물류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인 '씨벤티지'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I 기반 탈탄소·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 서비스에 씨벤티지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능력을 접목,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 CII 등급: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하는 규제로, 1톤의 화물을 1해리(1천852m)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 운항정보를 활용해 지수화한 수치로 A~E 5등급으로 분류, 등급이 낮은 선박은 운항을 제한할 예정이다.



▲ '오션와이즈' 솔루션

AI 기반 번역서비스 'AI 에이전트'

조선 산업은 외국인 작업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특히 신규 생산 외국인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 합류한 직원들이 겪을 의사소통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현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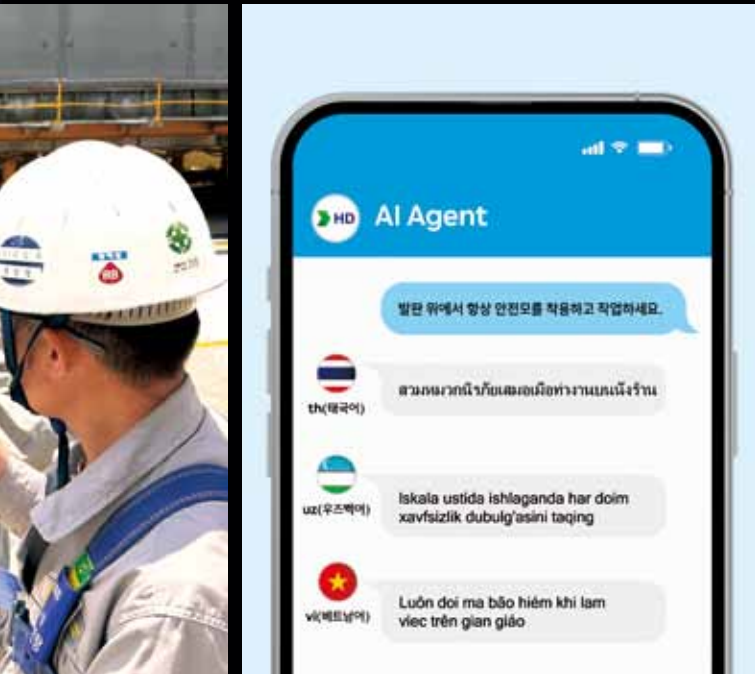


▲ AI 에이전트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HD현대삼호

서는 조선업 전문 용어, 일본식 건설 용어, 사투리가 혼용돼 사용되다 보니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직원조차 원활한 소통이 힘들었다.

기존 번역기를 이용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장(배 안의 전기 관련 업무)', '족장(조선소 작업에서 쓰는 발판)', '오사마리(일본어로 '일을 마무리하다'라는 뜻으로 건설 현장 용어)와 같은 단어는 일반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 한국인 직원이 그나마 익숙한 영문 번역 오류는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었겠지만 베트남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등 수많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번역 품질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HD현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맞춤형 번역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장 및 국가 표준 조선 용어 1만3천개와 선박 건조 과정의 4천200개 작업 지시 문장을 수집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학습시켰다. 현재 HD현대삼호에서는 약 1만 4천명 직원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번역기 하나로 선박 건조 현장의 소통은 더욱 원활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졌



▲ AI 에이전트 사용 사례

다. HD현대 AIC는 향후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해 단순 번역기를 넘어 외국인 종합 생활 지원 서비스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도 AI로 스마트하게!

이 외에도 HD한국조선해양은 AIC와 함께 조선사 야드 내 안전관리를 위한 AI 기반 지능형 안전 관제 서비스인 '영상기반 안전관제시스템(HiCAMS)'을 개발했다. HD현대는 현재 전 조선소 야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AI는 실시간으로 CCTV를 분석해 화재, 안전사고 등을 안전 관리자에게 알려줘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6월에는 AI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야드에서 선박으로 한 번 더 확장했다. 통합상태진단솔루션(HiCBM)과 통합안전관제솔루션으로 구성된 선박 안전 솔루션인 'AI 선내 안전관리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다. 이 솔루션은 선박 내 주요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 운항 중인 선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AI 혁신이 가져올 새로운 변곡점

AI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은 기업은 많다. 그러나 데이터 유출 같은 '보안 우려'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를 출력하는 '환각 현상' 같은 문제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AI의 활용은 회의 내용 요약, 녹취록 작성, 코드 리뷰 등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내려면 일단 빠르게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중요하다.

HD현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선, 건설기계 등 중공업 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도전들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오랜 기간 계열사에서 축적한 도면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업과 맞닿은 더욱 흥미로운 적용 사례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HD현대는 추후 기존 조선·해양, 건설기계, 에너지 산업 외에도 AI 기술 적용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열린 분야를 찾아 AI 개발 및 적용의 범위를 확장해 갈 계획이다.

▼ 영상기반 안전관제시스템(HiCAMS)



국내외 어디서든 인정받는 HD현대!

HD현대가 최근 최우량기업대상, 혁신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등 곳곳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며 대세 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 2024년 대한민국 최우량기업대상 수상

HD현대가 제26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2024년 대한민국 최우량기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량기업대상'은 전문성이 높은 경영학자들이 ▲탁월한 경영성과의 지속적 성취 ▲학계 및 국민의 평판과 명성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 ▲기업윤리·경영 투명성·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다.

HD현대는 도전과 개혁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국가 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 활동과 지속적인 기업문화 혁신으로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이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조석 사장은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및 비용 구조 효율화, 친환경·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송배전 시장 공략, 국내 해상풍력 사업 진출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HD현대 GRC, 환경부 장관상 수상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녹색건축물 준공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녹색건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2012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건축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GRC는 에너지절감형 디자인과 친환경 설비, 최첨단 스마트 오피스 구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RC는 ▲스마트 큐브(SMART CUBE) ▲스마트 보이드(SMART VOID)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활용한 독특한 형태가 특징이다. 건축설계는 니켈세케이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2022년 완공됐다. 현재 17개 계열사 약 5천5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RC는 이번 수상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시상식에서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연이어 인정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건축(Architecture)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부동산 관련 시상식인 '미핼(MIPIM) 아시아 어워드 2023'에서 최고의 오피스 및 비즈니스 프로젝트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GRC는 지난해 한국강구조학회에서 '올해의 강구조물'로 선정된데 이어, 제19회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적 가치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미국서 열린 '가스텍 2024'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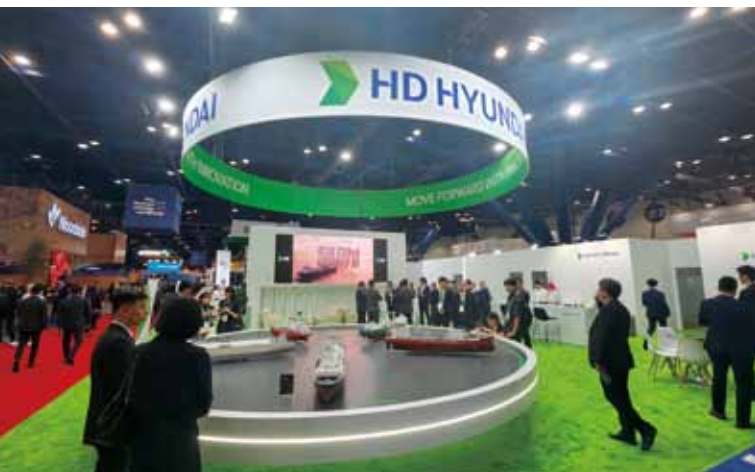
HD현대가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Gastech)에서 탈탄소·디지털 기술의 미래를 선보였다. HD현대는 지난 9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가스텍 2024'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여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HD현대는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해 영업,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분야 임직원들이 참석, 선사와 선급 등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조선 및 해운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이번 전시에서 420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전시 부스를 구성하고 차세대 LNG운반선, FSRU,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HD현대의 친환경 선박 모형을 함께 전시했다.

총 16건의 인증 획득 및 MOU 체결

행사 기간 동안 HD현대는 글로벌 선급 및 기업들로부터 총 16건의 기술인증 획득 및 MOU를 체결했다. 특히 가스운반선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에 있어 진일보된 기술력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HD현대는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LNG운반선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선박 가상 시운전 검증기술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받았다. 이 기술은 ▲엔진시스템 ▲전력시스템 ▲가스시스템 등 LNG운반선 주요 시스템의 디지털트윈 모델을



"친환경이 미래다" 美 가스텍서 탈탄소 기술 뽐낸 HD현대

세계 최대 친환경 선박·에너지 전시회인 '가스텍 2024'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독보적인 친환경 선박·에너지 기술을 앞세운 HD현대의 행보가 미국서 큰 주목을 받았다.



클라우드상에서 통합 연결해 한 척의 선박을 구성하고, 가상 시운전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박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선급(ABS)으로부터는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무인 엔진룸 설계와 안전관제 솔루션에 대한 기본인증을 획득, 선원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친환경 벙커링 선박,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설비(OCCS) 개조 등에 대해 다양한 기본인증들을 받았다.

이외에도 행사 첫날인 17일(화)에는 선사, 선급 등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통해 가스운반선의 트렌드와 전기추진시스템 현황, 선박 디지털 전환 로드맵 등 HD현대의 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8일(수)과 19일(목)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고객사 면담과 더불어 'HD RECEPTION' 행사를 진행해 부스를 찾는 고객사들과 HD현대의 미래형 친환경 선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모든 활동이 포인트로 쌓인다 'HD안전페이'



간단한 안전영상을 시청했더니 200포인트, 현장위험성평가 질문에 답변하니 100포인트가 바로 쌓였다.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안전 활동 독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29일(목) 본관에서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 카카오페이 백승준 사업총괄 리더,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협의회 이무덕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HD안전페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HD안전페이는 일상 속 각종 안전활동을 포인트로 쌓아주는 제도로, HD현대중공업이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새로 도입했다.

전 임직원(직영 및 사내 협력사)을 대상으로 '활동'과 '과정' 중심의 안전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직원 개개인에게 자발적

인 안전활동 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VISION 2027' 일환

'HD안전페이'는 HiSEs 앱에서 △모바일 안전작업지시 △현장위험성 평가 △안전 제보 △안전 점검 △안전 교육 △안전칭찬쿠폰 등 6가지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안전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HD현대중공업 '안전 VISION 2027'의 시스템·문화·기술에 기반한 안전 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합HSE관리시스템(HiSEs) 개선과 모바일 플랫폼 개편을 통해 기존 '조직'에 집중돼 있던 보상체계를 전 임직원 '개인'의 안전성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실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안전작업지시 확인·안전 제보·안전 점검·안전 교육 콘텐츠 시청 시 월 최대 1천 포인트,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월 최대 2천 포인트, 이외에도 안전칭찬쿠폰 수령 시 쿠폰 1장당 2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HiSEs 앱을 통해 안전 활동을 수행하면, 생산 작업자는 매월 8천 포인트 이상을, 관리감독자는 5천 포인트 이상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이다. HiSEs 앱에 적립된 포인트는 1:1 비율로 개인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고, 카카오 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안전포인트 적립 현황 확인, 카카오 포인트로의 전환 신청 등은 HiSEs 앱 'HD안전페이-나의 포인트'에서 할 수 있다.



HD안전페이 주요 포인트 적립 Contents

1 모바일 안전작업지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정확한 작업지시 및 현장안전 확보

2 현장 위험성평가

작업자 참여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통한 현장 작동성 강화

3 안전 제보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임직원의 안전 개선 요구



4 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의 현장 안전점검 참여

5 안전 교육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전사적 안전정보 공유

6 안전 칭찬 쿠폰

안전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안전활동 즉시 포상

유튜버, 블로거, 배우 등 다양한 이력

HD현대오일뱅크의 카젠 앰버서더 모집에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중 최종 카젠 1기 7인의 앰버서더에는 유튜브 신사용 채널의 이주하, 블로그 자동차공학과 인문학의 유현태, 영상작가 김정훈, 일러스트레이터 겸 바이크를 즐기는 박에스더, 배우 성은우, 뷰티 인플루언서 나린 김은미, 자동차 서킷 주행 유튜브 채널의 임지용이 이름 올랐다. 유튜버, 블로거, 배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의 앰버서더들은 자동차, 바이크, 캠핑, 여행 등의 콘텐츠를 아우르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8월 5일(월) 글로벌R&D센터(GRC)에서 열린 발대식에 선 HD현대 및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앰버서더들은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카젠과 일반휘발유의 차이점, 옥탄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고급휘발유 카젠과 초고급휘발유 울트라카젠의 차이 및 옥탄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브랜드에 대한 앰버서더들의 회사에 대한 애정과 활동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앰버서더들은 자신의 분야와 앞으로 만들어갈 콘텐츠에 대해 설명하고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다채로운 카젠 홍보

카젠 앰버서더 활동은 지난 8월 5일(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다. 활동 기간 동안 앰버서더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다채로운 방법으로 카젠 홍보에 나섰다.

가장 먼저 활동 시작을 알린 앰버서더는 배우 성은우. 성은우는

카젠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7인의 앰버서더가 모였다!

HD현대오일뱅크의 고급휘발유 카젠 앰버서더 발대식이
지난 8월 5일(월) 글로벌R&D센터(GRC)에서 열렸다.



지난 8월 21일(수) 흑석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찾았다. 레트로 감성을 담아 카젠 주유 사진을 완성했는데, 의상부터 시선을 모으기 충분했다. 연청바지에 빨간색 헤어밴드를 매치해 레트로 감성을 극대화했다. 성은우 앰버서더는 고급휘발유 카젠의 가치를 체감한 후 생생한 후기를 개인 SNS에 공개하고 팔로워들과 함께 주유 챌린지 및 댓글을 첨부해 주유 쿠폰을 제공 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7일(월) 앰버서더 활동 종료 후 최우수 활동자 이주하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유현태와 임지용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울산부터 미국까지, 생산력 풀가동!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외 생산시설을 잇달아 증축하며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섰다.



북미 생산 법인 변압기 전문 보관장 준공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7월 26일(금)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북미 생산 법인(HD HPT)에서 변압기 전문 보관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HD HPT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며, 2019년 증설을 거쳐 HD현대일렉트릭의 핵심 생산거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준공된 보관장은 약 4천평 규모로, 총 60대의 변압기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이번 증축으로 과거 완제품을 보관했던 조립장에서 변압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장소로 완제품을 운반·보관하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서 조석 사장은 “변압기 전문 보관장을 신축해 제품 보관 환경 및 품질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변압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고객 만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심장, 울산 공장 증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 변압기 공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8월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생산 시설인 300킬로볼트(kV) 공장의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레이아웃 변경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철심공장 신축도 10월 중 마무리한다.

이번 공사로 산재돼 있던 철심작업장을 통합 운영하고 기존 철심작업장은 조립장으로 활용해 연간 70여대의 변압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美 앨라배마 공장 증축에 이어 울산 공장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2천20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내일의 씨앗, 청주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HD현대일렉트릭은 송전 인프라 확충 이후 다가올 배전기기 호황에 발맞춰 배전기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전체 부지면적 약 2만5천평에 들어서게 될 청주 중저압 차단기 공장은 오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총 투자액 1천170억을 들여 건설된다. 선진사 수준의 양산 프로세스가 구축될 청주 신공장에 힘입어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약 1천300만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일(화)에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권 회장은 “신공장은 첨단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배전기기 생산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톱 엔진 메이커 향한 새로운 발걸음

HD현대마린엔진이 지난 7월 HD현대 선박 엔진 계열사로 정식 편입됐다. 공식 출범하면서 초대 대표이사에는 강영 사장이 선임됐다. HD현대는 HD현대마린엔진의 출범을 통해 엔진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2030년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는 이를 위해 선박 엔진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선박 엔진 생산 포트폴리오를 ▲대형 선박 추진용 엔진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 ▲중소형 선박 추진용 엔진을 생산하는 'HD현대마린엔진' ▲발전용 엔진을 생산하는 'HD현대엔진'의 3社 체제로 새롭게 재편하고,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엔진 수요 증가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기술 공유를 통해 친환경 엔진 설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통망을 공유해 수출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마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크랭크샤프트 생산 기술과 일원화된 터보차저 생산체계를 활용,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박 엔진 시장 글로벌 1위인 HD현대중공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HD현대 최고 경영진 방문, "우리는 한 가족"

HD현대 최고 경영진은 지난 9월 24일(화) 인수 후 처음으로 HD현대마린엔진을 찾았다.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HD현대의 가족으로 새출발 HD현대마린엔진

HD현대가 선박 엔진 전문기업인 HD현대마린엔진(구 STX중공업)을 새로운 가족으로 품으면서 대형 선박 추진용 엔진과 중소형 선박 추진용 엔진, 발전용 엔진을 각각 생산하는 '삼각 라인업' 체제를 완성했다.



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 등 HD현대 주요 경영진이 HD현대마린엔진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HD현대 경영진은 HD현대마린엔진 강영 대표의 안내로 엔진조립장, 시운전장 등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HD현대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 등 HD현대 경영진은 공장 내 본관 앞에 마련된 커피차에서, 직원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직접 커피와 빵 등 간식을 나눠줬다. 이후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은 직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HD현대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설명,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갑 회장은 "HD현대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HD현대가 보유한 최고의 R&D 역량을 통해 HD현대마린엔진이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HD현대삼호 |

‘남악 자율 아카데미’ 운영



HD현대삼호 임직원들은 퇴근시간 이후 ‘남악 자율 아카데미’를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

HD현대삼호는 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메이커스페이스)의 인력(강사, 교수)·설비·장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강료 및 학습자 간 인적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악 자율 아카데미’는 지난 3분기 설계부문에서 2개 과정을 시범 운영했고, 이번 4분기부터는 ▲3D 프린팅 및 CNC 활용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친환경 선박 개론 ▲선박 기계설치 등 총 4개 과정을 전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개회식에 참여한 신현대 사장은 바쁜 업무에도 주경야독하여 자기 계발에 힘쓰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

북미 통합 제작 센터 설립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 9월 4일(수)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Brunswick)에서 ‘HD현대 통합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Customization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는 한국에서 생산한 반(半)제품을 고객의 주문 사양에 맞춰 현지에서 조립·완성하는 곳으로, 이번에 개소한 통합 센터는 기존에 사바나에서 각각 운영하던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조립 센터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번 통합 센터 구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무형의 시너지뿐 아니라, 브룬스윅항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 면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

인도네시아 광산장비 전시회 참가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 9월 11일(수)부터 14일(토)까지 나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마이닝 인도네시아(Mining Indonesia)2024’에 참가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마이닝 인도네시아는 1천300여 개사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광산장비 전시회다.

HD현대건설기계는 100톤급 초대형 굴착기, 단단한 바위나 지면을 부수는 어태치먼트인 ‘락 리퍼(Rock ripper)’를 장착한 50톤급 대형 굴착기, 광산용 덤프트럭(WDT), 30톤급 대형 굴착기를 전시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00톤급 초대형 굴착기와 53톤급 중대형 크롤러 굴착기, 휠로더, 광산용 덤프트럭, 굴절식 덤프트럭(ADT) 등 광산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선보였다.

양사는 채굴용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로 인도네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HD현대로보틱스 용접 로봇이 HD현대건설기계 굴삭기 생산 자동화 선진화 공정에 투입됐다. 기존에는 외국회사인 'IGM', 'CLOOS'사의 용접 로봇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HD현대로보틱스 용접 로봇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새로이 채택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HD현대로보틱스 용접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HI6제어기의 후판 용접 적용 기술과 LVS(Laser Vision System) 용접 시작점 검출(Finding)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HI6 제어기는 HD현대로보틱스의 차세대 제어기로 후판 용접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재화 됐다. LVS 검출 기능은 굴삭기 용접 부재의 다양한 형상에 최적화된 템플릿을 개발해, 작업 시작부 검출 시간을 수초 이내로 단축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HD현대로보틱스 |

용접로봇, 굴삭기 제조 공정에 투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중동 소재 선사와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3천 700만 달러 규모의 '축 발전 시스템(Shaft Generator Syst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축 발전 시스템은 선박 추진용 대형엔진의 회전 동력 일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에 수주한 축 발전 시스템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추진용 대형엔진은 기존 발전원으로 사용되던 중형엔진 대비 연료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IMO 환경규제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선박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와 탄소집약도지수(CII)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친환경 선박 발전설비로도 각광받고 있다. 과거 일부 선사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하던 '축 발전 시스템'은 현재는 LNG 운반선, LPG 운반선 등 대형 가스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HD현대마린솔루션 |

'축 발전 시스템' 2028년까지 공급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애너하임에서 열린 미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시회 'RE+ 2024'에 참가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N-TOPCon' 기반의 주택용 모듈과 상업용 및 유틸리티용 모듈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초고효율 탠덤셀, RoHS 인증 친환경 모듈 등을 함께 전시했다.

'N-type 웨이퍼'를 사용한 신규 모듈 제품은 효율, 장기 신뢰성, 내구성 등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 큰 호응을 얻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 HD현대에너지솔루션 |

신규 모듈로 미국시장 공략 강화



무탄소시장 리더로 성큼...“수소시대 선점”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80K급 대형 전기추진 액화수소운반선 개념설계를 완료했다.

지난 9월 열린 가스텍(GASTECH) 2024에서는 개념승인(AIP)까지 받으며, 수소시대를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액화수소운반선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액화수소 대형탱크의 생산기술이 오랜 기간 정립 및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수소는 잘 증발되기 때문에 항해 중에 버려지는 양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며, 액화수소를 선적할 수 있도록 탱크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키는 데 많은 양의 수소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러한 시장의 인식을 불식시킬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이번 노르웨이선급(DNV)로부터 받은 AIP를 통해 새로운 기술들이 안전성이 높고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임을 인증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개발 중인 액화수소운반선은 항해 중 발생하는 수소 증발가스(BOG, Boil-off Gas)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힘센엔진의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연료비 저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에는 독자 개발한 화물탱크를 적용해 선박의 하중 전달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성을 높였고, 액화수소 탱크의 냉각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화물운영시스템도 적용했다.

후발주자에서 차세대 리더로 거듭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기술의 검증을 위해 지난 8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총 2박 3일 동안 글로벌R&D센터(GRC)에서 '수소운반선 기술 리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위

크숍에는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셸(Shell)'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기술진과 'M.O.L.', '현대글로벌비즈' 등 유력 선사의 선장, 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80K급 액화수소운반선 안전성과 기술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 운항 선사의 관점에서도 선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임을 확인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말까지 수소 이중연료 힘센엔진과, 대형 탱크가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증명하는 '대형 진공 챔버 실증 시험'을 준비하며 신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액화수소운반선은 일본 경쟁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수소시스템개발과, 신개념선박연구실, 열시스템연구실, CAE연구실, 시스템안전연구실, 자동화연구실, 첨단동력연구과 및 HD현대중공업 액화가스 저장연구실, 그린동력시스템연구실이 협력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hell, Woodside와 같은 해외 에너지 기업들은 HD한국조선해양을 액화수소운반선 개발 협력사로 선정하고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과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나아가서는 HD현대 산하의 조선사들이 실제 선박을 개발 및 건조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HD현대의 독자 액화수소운반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와 엔진의 장점만 쏙! '국내 최초' 수소엔진 개발

1958년 국내 최초로 디젤엔진 사업 시작, 1985년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디젤엔진 개발 성공

HD현대인프라코어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수소엔진 개발에 성공하며 최초의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친환경·경제성·기능 3박자 갖춰

수소엔진은 기체 형태의 수소와 산소가 섞여 연소해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하며 전기 배터리, 수소연료전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3대 파워트레인으로 꼽힌다. 탄소제로 동력원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며, 기존 내연기관 엔진 구조를 활용해 개발과 생산 측면에서 유리하다. 유지보수 또한 기존의 엔진 정비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파워트레인과 비교해보면 수소연료전지가 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필요로 하는 반면, 수소엔진

은 저순도 수소로 구동이 가능하다. 전기배터리에 비해서는 용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 1회 충전 시 배터리에 비해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진다. 덕분에 장시간 운영이 필요한 대형 건설기계나 버스, 트럭 등에 적합하다.

3가지 국책과제 참여 중, '상용화' 박차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0년 수소엔진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엔진 개발에 돌입했다. 2023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배기량 11L급 수소엔진 'HX12'의 1호기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다양한 국책과제에 참여하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건설기계용·상용차용 수소엔진 개발' 과제에 참여해 건설기계, 트럭, 버스 등에 탑재할 수소엔진을 개발 중이며, 목표치인 최대 엔진 효율 44%를 달성한 상태다. 현재 실제 트



▲ 2024 H2 MEET 수소전시회에서 선보인 발전기 엔진 모형



▲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HX12'수소엔진

럭에 탑재해 충전 성능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효율 수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실증' 과제를 수주했다. 이 과제에서는 기존 11리터급 수소엔진 'HX12'에 더해 22리터급 'HX22'를 적용한 발전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도 검증하고 있다. 이어 8월 수주한 '직분사 수소엔진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수소연료 분사 기술과 터보과급 기술을 개선해 고출력 수소엔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트럭용 수소엔진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 발전

용 수소엔진 개발, 2027년에는 직분사 수소엔진을 개발해 고출력이 필요한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 등으로 적용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24 H2 MEET 수소전시회 HD현대인프라코어 부스 전경



웨어러블 장비, 조선사와 만나다

HD현대삼호는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상지 근력 보조 웨어러블 장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작업자들이 현장 작업에서 겪는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안성맞춤이다.



▲ 허리근력 보조
웨어러블 장비 컨셉



▲ 손목 보호 웨어러블 장비
(기성 테스트품)



▲ 상지근력 보조 웨어러블 장비 컨셉(개발 예정)

한계가 명확한 기성 웨어러블 제품

선박 건조 현장은 용접, 도장 등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나 최근 젊은 노동인력 유입의 한계와 함께 기존 작업인력은 고령화 추세에 있다. 실제 HD현대삼호 협력사 인력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평균 44.7세에서 2024년 현재 평균 나이는 46.8세로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다. 55세 이상 사내 협력사 근로자는 1천600여명으로 점유율 약 26%나 차지할 정도다. 이에, 고령 근로자들의 신체부담을 줄여줄 신체 근력보조장비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근로 환경 개선은 곧 젊은 인력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HD현대삼호는 국내외 시중 구매 가능한 기성품 약 70여대를 가지고서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시중 제품은 범용적인 장비로서 다양한 선박 건조 공정에 요구되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용접, 도장, 배관, 전장 작업 등 웨어러블 장비가 요구되는 작업들의 맞춤형 장비가 없었으며, 장시간 착용 시 장비의 무게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착용성의 저하가 문제됐다. 또,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인해 확대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조선 산업 맞춤형 장비 개발 착수

HD현대삼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선 산업 맞춤형 웨어러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전문제작업체인 A사와 지난 6월 개발 협약을 맺고 개발을 본격 착수했다. 이번 웨어러블 장비 개발은 국책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한 개발 목표는 선박 건조 공정에 소요되는 맞춤형 상지근력 보조 장비와 허리근력 보조 장비이다. 상지근력 보조 장비는 팔과 어깨의 부담을 축소하고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스마트 센서를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 관리(작업 중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자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알람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과 경량으로 제작해 기존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안전벨트의 기능을 포함한 허리근력 보조 장비의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HD현대삼호 개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조선업 전반의 안전 문화와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방면 활약으로 사내외에서 인정

전성국 기장은 1999년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서 일하며 건설기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건설기계 정비, 협력사 기술지원 등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내 강사로 핵심 부품 분해 조립과 건설기계 정비 기능장에 대한 강의를 펼치는 등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재직 기간 동안 인정받은 성과로 ▲울산광역시 명장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 ▲직업능력의 달 국무총리 표창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표창(2회) 등 각종 대외 수상뿐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전사 제안왕 ▲빛나는 건설기계인 상(3회) 등을 다수 수상했다.

성공의 원동력 '메모하는 습관'

전 기장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린 시절 고무 동력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탔을 정도로 타고난 손재주도 있었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과 메모하는 습관이 크게 작용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원인을 찾기 위해 전기회로도나 유압회로도를 펼쳐놓고 해결이 될 때까지 몇 시간 이든 고민하며 공부했다. 또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메모하는 습관으로 빠르게 실력을 쌓았는데, 이후에는 메모한 내용을 모아 고장사례집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현재도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학과와 울산과학대학교 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동시에 재학하는 등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될 수 있었던 노하우로 자격증 취득, 사회공헌 활동, 현장개선 활동을 꼽았다.

전 기장이 보유한 자격증은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등 14개에 이르며, 지역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전 기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도전한 끝에 국가로부터 최고 기술자로 인정받아 감개무량하다"며, "기술을 전수해 후배양성에 힘쓰고,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인이 되다 '전성국 명장'

HD현대건설기계 부품품질팀 전성국 기장이 기계정비 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서류, 현장심사 그리고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금의환향(錦衣還鄉) 국제기능올림픽 金, 銀, 銅 3인방 '기술인의 성지', HD현대중공업을 빛낸다!

HD현대중공업과 우리나라를 대표해 지난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 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김준수(CNC선반 직종 금메달), 강도영(배관 직종 은메달), 김동현(철골구조물 동메달) 사우가 빛나는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다. 고교 시절부터 하나의 꿈을 좇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선수들의 대회 소감을 들어보자.

꿈에 그리던 금메달, 도전의 맛을 느끼다!



김준수 사우

고교 시절부터 꿈꾸고 준비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는 고교 시절 선배의 권유로 CNC선반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고된 훈련을 참고 견뎠던 순간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끝났다는게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 동안의 고된 훈련에 최고의 결실을 맺게 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엔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지?'하며 답답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메달을 따야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져 힘겨운 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지도해주시는 교사님들, 전 국가대표 신민준 선배, 고교 선배이자 HD현대중공업 선배 이성우 선배님 덕분에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리옹으로 향했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컨디션 관리가 어려웠고, 평소 쓰던 공구들을 압수당해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0.01mm의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직종이기에, 예민해진 감각들은 저를 더 집중시켰습니다. 과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어렵게 느끼는 도면이라면, 상대는 더 어렵게 느끼고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2일차에는 1,2번째 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들뜬 기분으로 3번 과제를 대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최종 결과에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대회 전 인터뷰에서 "6년간 3위 내 수상이 없었던 HD현대중공업의 수상 공백을 제가 메우겠다"고 말한 공약을 지켜 정말 기뻐고, 이 순간을 위해 스스로 갈고 닦았던 모습이 생각나 '이게 도전을 즐기는 이유구나!' 짜릿함마저 들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이라는 오랜 여정은 '언제나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옹에 도착했을 때, HD현대중공업에서 2년간 훈련해온 시간의 마침표를 찍으러 왔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우면서도,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5년 동안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왔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저를 믿어주고 의지가 되어준 가족들에게, 특히 배관 업무 선배이자, 이 일을 접하게 만들어준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제게 말씀해주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라”는 조언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또, 지도교사 이형구 기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최고라 생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이 기운을 받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배관 은메달



김동현 사우

끝나지 않는 도전, '뿌리산업 인재' 목표

철골구조물 동메달



강도영 사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늘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철골구조물'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저 스스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 '5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들, 훈련 기간 동안 저를 이끌어주신 지도교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기술에 대해 소통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작업 방법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회사를 제가 대표할 수 있어 부듯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이라는 도전은 막을 내렸지만, '기능인'으로서의 도전은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도 생각하고 있고, 관련 직종의 자격증도 취득해 HD현대중공업에서 '뿌리산업의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의 흐름을 꿰뚫고, 술책이 아닌 실력으로 답하는 사명감 있는 기술인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회사,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나아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갈고 닦는 이들이 있다.

2024년 제 133회 정기 기술사에 당당히 합격증을 얻어 낸 HD현대 사우 5명을 만났다.



HD현대중공업 구조설계부
전형진 책임엔지니어(조선기술사)

단순한 시험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저는 2011년 입사 이후 조선업 불황을 직접 체감하며, 끊임없는 기술 성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조선기술사 취득에 뜻이 있는 부서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전공 서적과 논문들을 직접 찾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내 기술사 모임 '술사회'와 기술사 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년간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조선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업에서의 경험과 시험을 위해 익힌 지식들이 결합되는 것을 느끼며 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나눈 지식으로 한 번 더 성장했어요!

건설기계는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금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속재료기술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HD현대 건설기계 3사의 자기주도 학습활동 프로그램인 'CELL(Community of Employee-Led Learn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CELL을 통해 만난 동료들과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고, 각자의 답안을 비교하며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먼저 금속재료기술사를 취득한 이창래 책임연구원이 CELL의 리더로서 자격시험 준비에 필요한 기술 지식과 답안 작성 방법을 아낌없이 전수해줬습니다. 또, 정기환 신소재연구팀장님께서 스폰서로 나서 저희가 CELL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술사 취득을 통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거 같아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쌓아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신소재연구팀
김정엽 책임연구원(금속재료기술사)



HD현대미포 건조부
김태현 책임매니저(기계안전기술사)

K-직장인의 '갓생' ... 자기개발 삼매경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2년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를 취득고, 이듬해에는 '위험물기능장' 및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에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맡고 있는 업무와 대학 전공이 일치하는 기계안전기술사 분야에 응시, 전국 14명의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산현장에서 익힌 경험과 기술을 먼저 취득한 선배의 조언 등 회사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는 인생인 '갓생(GOD生)'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비단 기술사가 아니라라도, 보람찬 인생을 위해 우리 모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길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늦깎이 수험생의 도전, 당신도 할 수 있다!

2020년 제 나이 50세에 후배의 권유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를 지난 2022년 최종 합격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기계안전기술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점심시간 20분도 아껴가며 공부했고, 약점이라 생각되는 면접 준비를 위해 대면·화상을 가리지 않고 모의 면접 모임에 찾아가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올해 기술사에 합격하게 되면서, 도전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부할 수도 있지만, 사우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전하세요, 파이팅!



HD현대중공업 특수선기장설계부
김기환 책임엔지니어(기술안전기술사)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디자인 경험이 '합격의 밑거름'



HD한국조선해양 브랜드디자인팀
강윤정 선임매니저(제품디자인기술사)

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다양한 경험과 그를 통한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그룹사에서 10년 간 개발, 영업, 마케팅, 글로벌사업 등 많은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제품 생산부터 각종 PR, 브랜딩 등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결한 디자인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그 핵심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것이 디자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본에 충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품디자인기술사가 다른 기술사 대비 시험 정보가 부족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니즈를 잘 반영해 회사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커질 수 있도록 브랜딩 하겠습니다.



▲ HD현대사이트솔루션 HRD팀

건설기계 교육이 이렇게 재미있다고? 귀여운 비주얼 속 숨어있는 최첨단 기술!

HD현대 글로벌R&D센터 7층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일반적인 사무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아기자기한 건설기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굴착기와 휠로더, ADT(Articulated Dump Truck), 지게차 등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에서 생산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체험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겠지만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가 조성된 배경과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술원 버추얼기술 담당자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의 시작점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의 사물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을 제작하기 전 모의 실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2020년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술원에서 자기주도 학습활동인 CELL(Community of Employee-Led Learning)을 통해 VR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원격조종 RC 굴착기를 개발했다. 굴착, 상차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 상황에서

▼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 전경





▲▼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 실습 교육



하중, 내구성 등 구조해석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RC 건설기계를 실제 건설기계의 조이스틱과 연동하는 형태로 발전시켰고, 2024년 1월 다양한 종류의 RC 건설기계와 VR 체험 실습장, 원격조종 스테이션을 갖춘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가 공식 오픈했다.

교육과 연구개발은 기본, 홍보 효과까지 특목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는 임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구축됐으나,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이 건설기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구성돼 글로벌R&D센터를 방문한 고객과 대학생 등 외부인에도 체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드림스쿨’에 참여하는 청소년 멘티들이 방문해 진로를 탐색하

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임직원 교육은 총 3시간 과정으로, 굴착기 구조와 명칭, 작동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 1시간과 RC 건설기계 VR 운전 실습 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면허시험장을 1:14 스케일로 그대로 축소한 공간에서, 실제 차량의 조이스틱과 VR 고글을 통해 실감나게 연습할 수 있어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합격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D팀 이병용 선임매니저는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정에 교육생들이 신기함을 느끼고 교육에 몰입한다”며, “실차에 탑승할 때보다 다양한 동작을 부담없이 시도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 안쪽에 위치한 원격조종 스테이션에는 실제 장비 사이즈의 캐빈과 특수 모니터,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기기가 있다. 가상공간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며 편의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험장에 있는 장비와 연동해 무인·자동화 건설기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신모델 검증에도 버추얼트레이닝 센터의 XR 기술이 활용됐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 구축의 숨은 주역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술원의 버추얼기술과 HRD팀의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 구축과 RC 장비 개발 등 기술적인 부분은 버추얼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HRD팀에서 담당한다.



▲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 원격조종 스테이션

특히 오대진 책임연구원(구조연구팀 강도내구파트)의 역할이 돋보인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의 모든 훈련코스를 설계하고 16개의 RC 건설기계를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구축 이후에도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측하고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가 임직원 역량 향상뿐 아니라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는 올 여름, 공간을 확장하고 실습 공간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더해 향후 XR기술을 활용한 조립·정비 교육과 미래 건설기계 연구 및 교육 과정 등을 추가하고, 최첨단 건설기계 기술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에서 RC 굴착기를 조립하고 있는 오대진 책임연구원



HD현대 디지털 전환의 핵심, DT솔루션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
HD현대의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HD한국조선해양 DT혁신실 DT솔루션팀을 만났다.

Q. DT솔루션팀, 구체적인 업무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T솔루션팀은 HD한국조선해양의 ‘팔란티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수많은 업무들을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가 넘는 업무에서 연간 27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 AR/VR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 제작, 디지털제조(Digital Manufacturing),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HD현대 내 17개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검색 시스템



'PADO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색과 연계되는 다양한 AI기반 지능형 서비스들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PADO 플랫폼에서는 ▲공통 콘텐츠(기술용어, 지식) ▲HD오피스 콘텐츠(ECM, 공문, 전자결재) ▲계열사별 콘텐츠(공용메일, 주요 업무데이터) 등을 검색,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저희는 '지식 공유'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사 디지털 전환과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DT솔루션팀에서는 PLM(제품 수명 주기 관리) 진단, 방향 수립 및 과제 수행을 하고 있으며, 조선 부문 그룹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 DT솔루션팀에서는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DT솔루션팀은 매분기마다 플로깅 활동, 일일공방클래스, 댄스챌린지, 요리대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T혁신실이 팀별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덕분이에요. 저희 팀은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서로의 의견을 편하게 공유하다 보니,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가 나오기 쉬운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댄스 챌린지였습니다. 평소에 다들 춤을 안 추니, 어색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시작하니 팀원 모두가 땀범벅이 될 때까지 열정적으로 연습하더라고요. 팀원들을 새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Q. DT솔루션팀은 팀 내에서도 근무지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많은 계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각 사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울산과 판교의 업무 이원화 체계로,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떨어져 있지만, 울산과 GRC 근무자가 협업 톨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업무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Q. DT솔루션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IT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룹사 제품 및 사업 프로세



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룹사 고객의 니즈에 맞춰, 이와 연관된 제품/프로세스/데이터/조직/시스템을 분석한 후 DT(Digital Transformation)나 ICT기술을 결합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DT솔루션에 대한 기술 검증은 물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작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까지 수행합니다.

또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DT솔루션팀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IT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AI 스터디가 그 일환인데요. 각자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스스로 학습한 후 팀원들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있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AI 기반 솔루션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DT솔루션팀의 비전은 '그룹사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를 위해 각 목표에 맞는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사내 지식을 결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일부 업무 영역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 미래 언젠가는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AI 시스템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는 팀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린 조직 문화 덕분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반영해 나가며,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합니다!

HD현대1%나눔재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물 시료 제작사' 양성 활발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은 지난해부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의 생물 시료 제작사를 양성하는 사업에 후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장애인 생물 시료 제작사들은 일주일에 1만 마리가 넘는 곤충을 분류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생물 표본 제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장애인 일자리인 생물 시료 제작사에 대해 소개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목), 26일(금) 양일간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중증장애인 생물 표본 제작기 '나비의 꿈'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중증장애인 생물 시료 제작사가 직접 제작한 생물 표본 전시뿐만 아니라 곤충 표본 제작하기, 압화 부채 만들기 등 체험이 마련되어 임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사내 어린이집 '드림보트'의 어린이들도 전시장을 방문하여 곤충과 식물 표본을 관람하고 DIY 곤충 나무블록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곤충 표본 제작 체험에 참여한 김경민 매니저(HD한국조선해양 디지털혁신팀)는 “직접 곤충 표본을 만들어보니 고도의 집중력과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며 “이와 같이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중증장애인 생물 시료 제작사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HD현대 사내 어린이집 '드림보트'의 어린이들이 중증장애인 ▲ 생물표본 제작기를 담은 전시 '나비의 꿈'을 관람하고 있다.

곤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곤충 샘플을 채집하여 실험실로 가져와 비슷한 종류의 곤충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의 곤충이 들어있는 한 개의 샘플을 곤충의 모양과 크기에 맞춰 분류하는 일은 실제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다.

HD현대1%나눔재단과 국립공원은 중증장애인의 전문 일 자리를 창출하고 국립공원의 건강한 자연 보전을 위한 곤충 연구에도 기여하고자 해당 사업을 기획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ESG와 사회공헌 분야를 접목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도그워커

HD현대1%나눔재단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 북구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 '도그워커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그워커란 바쁜 견주를 대신하여 반려견 산책을 돕는 직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총 20명의 도그워



커를 양성할 예정이다.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91%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실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6.2%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HD현대1%나눔재단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도그워커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실무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반려동물협회 소속 강사를 초빙해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8주간 교육을 진행하고, 최대 6개월간 실습한다. 또한, 실제로 산책을 진행할 때는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이 보조 강사로 동행하며 활동을 돕고 있다.

지난 8월,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

그워커 양성 과정과 실제 발달장애인 도그워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도그워커를 아시나요?'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도그워커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도그워커는 "처음에는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을 몰라 겁이 났지만, 이제 어떤 강아지가 와도 자신이 있다"며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장애인복지관 도그워커 사업 담당자는 "HD현대1%나눔재단의 지원을 통해 지속성 있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堂堂하게 우리 사회로 나아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HD현대희망재단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지원 시작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장학재단을 마련했다.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초대 이사장 선임



HD현대희망재단이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HD현대희망재단은 지난 9월 2일(월)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HD현대희망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설립 허가와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이사회 구성을 마쳤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됐다. 이기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5년간 재직한 고용노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재단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사재 1억 원을 출연한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명예이사장을 맡았다.

“가족 잃은 슬픔 달랠 것”

HD현대희망재단은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상반기에는 유가족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법률 구조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지난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설립한 HD현대1%나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에게 수여하는 ‘HD현대아너상’을 새롭게 제정, 우리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주영 창업자의 생명 존중 사상 깃든 곳 강릉 아산병원, "위기의 순간 생명 지키다!"

아래 기사는 강원도민일보 이수영 논설위원이 지난 9월 20일(금)
강원도민일보 칼럼(명경대)으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응급실 입구는 앰بول런스와 119구급차량으로 빌 틈이 없었다. 영양제 주머니를 꽂은 환자들이 현관 앞에서 이동식 침상에 누워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와 구급대원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호명을 기다렸다. 모든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태이거나, 동네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중증 환자들이 우선이었다. 응급실 안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긴급 조치에 여념이 없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산소 호흡기를 달거나 약품을 투약해 고비를 넘기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환자들은 혈액 검사와 X레이 촬영,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검사실을 오고 갔다. 의료진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말도 줄여야 했다. 모든 응급조치 과정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추석 명절 연휴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은 이렇듯 숨 가쁘고 긴장된 시간으로 채워졌다. 더불어 영동 지역 최대 종합병원으로서의 비중을 확인하게 했다. 다른 훌륭한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강릉 아산병원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다.

강릉 아산병원은 정주영(1915~2001) 전 현대그룹 회장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 전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기도 했던 고인은 1996년 11월 강릉시 사천면에 아산병원을 개원했다. 고향 주민들을 위해 강원도에 종합병원을 설립한 것이다. 병원은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강원 동해안 전체를 아우른다. 주민들은 수도권의 큰 병원을 가지 않고도 1시간 안팎의 시간

에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정 명예회장의 고향 사랑은 각별했다. 1970년 강원은행 창립 발기인 대표 추대에 응하며 향토은행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 1998년엔 두 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북강원으로 향했다. 이윽고 금강산 관광을 성사하기에 이르렀다. 강릉에 큰 병원을 세운 것도 애향심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그의 고향 사랑과 생명 존중 사상은 위기를 맞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고인이 된 정 회장의 말이 들리는 듯하다. "부자들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글 이수영 논설위원(강원도민일보)

▼ 강릉 아산병원



THE HD STORY,

정주영 창업자의 리더십과 한국 조선업의 탄생



1960년대 초, 건설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룩했던 HD현대 정주영 창업자.

그는 안주하지 않고, 국가적 사업 '조선업'에 뛰어드는데...

지금의 HD현대가 있기까지, 50여년간 있었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아본다!

유튜브로 보는 50여 년의 그룹 역사

HD현대는 최근 그룹 50주년 사사를 2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HD현대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두껍고 긴 1천 500페이지 분량의 사사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풀어낸 것이다. 특히 정주영, 이병철, 구인회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에 주목하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역사 예능 콘셉트를 차용, 정주영 창업자 정신을 소개하며 MZ세대 시청층을 공략했다.

The HD STORY는 1, 2편 영상 모두 '스토리텔러'가 패널들에게 대화하듯 사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스토리텔러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혜성씨로, 사사 3권을 완독하고 정리하는 열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패널로는 HD현대 임직원들,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출연했고, 이들의 솔직한 반응이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여줬다.

창립 비하인드 등 생생한 순간 모두 담았다!

1편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중공업 산업, 조선업에 대한 정주영 창업자의 열망 그리고 조선소 건설 과정 속 히스토리가 담겼다. 특히, 정주영 창업자가 500원 지폐를 가지고 영국A&P애플도어 롱바툼 회장을 설득해 차관을 얻은 일화와 그리스 선엔터프라이즈의

리바노스 회장과의 일화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로 패널들의 관심을 끌었다.

2편은 정주영 창업자의 조선소 부지 선정 과정과 울산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울산조선소 준공식과 1,2호선 명명식 히스토리를 들려준다. 이와 더불어,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과 조선 계열사 3사(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를 소개하며 각 사의 역사와 강점, 창립 비하인드를 함께 담았다.

영상의 댓글에는 HD현대가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역사와 핵심가치를 전달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계 1등이 그냥 탄생한게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런 재밌는 비하인드를 이제야 알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회사 역사가 곧 전설이다. 낭만 그 자체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HD현대는 지난 2022년 그룹 50주년을 기념해 50년사를 발간했다. 1972년 조선입국의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첨단기술로 미래기업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룹이 걸어온 지난 50년과 앞으로 나아갈 50년의 비전을 담아 △통사 △성장스토리 △화보로 주제를 나눠 총 3권으로 발간한 바 있다. 온라인 사사는 HD현대 홈페이지에서 헤리티지 탭-그룹 50년사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HD STORY



▲ 그룹 사사

“주유노우 오일전사?” HD현대오일뱅크, B급 감성 통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그것은 바로 차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명예를 위해 불가능한 이 여정에
맹렬히 스스로의 모든 것을 건 HD현대오일뱅크의 오일 전사들!

40리터의 전사들이 펼치는 대서사시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8월 21일(수) ‘오일전사’라는 제목의 디지털 광고를 공개했다. 광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지 하루만에 누적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고,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1천만회를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기존 딱딱했던 이미지의 기업 홍보영상을 벗어나 젊고 재치 있는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이다.

영상의 주 내용은 기름을 의인화한 ‘오일전사’들이 진심을 다해 차를 밀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끝내 연소되는 내용이다. 주연 배우에는 유지태, 김동준이 기름대장 역할로 분하며 열연을 펼쳤다. 스토리의 흐름은 B급 감성이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배우들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영상은 독창적인 광고를 제작하는 ‘돌고래유괴단’과 협업해 만들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3분짜리 영상을 보려다가 5분짜리 광고를 모두 보게된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달걀 프라이도 HD현대오일뱅크 기름으로 부치겠다” 등 유머 있는 반응이 잇따랐다. 진심을 다해 역할을 해내는 오일전사의 모습에서 본인을 투영하는 반응도 많았다. “오일전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꼭 나 같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한다”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 오일전사



MZ세대 취향 저격, 채용 홍보 효과 ‘톡톡’

HD현대오일뱅크 담당자는 “진심을 주유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며 “혁신적인 광고가 나올 수 있던 것은 열린 기업 문화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오일전사 공개 후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 8월 30일(화)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커피와 도넛을 직접 나눠주며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넛과 음료를 실은 커피차에는 “커피차 위치로, 도넛 준비 완료!”를 적어, 한 명의 오일전사와도 같은 임직원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9월 2일(월)부터 시작된 HD현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도 오일전사의 이미지가 쓰여 MZ세대(1980년 초~2000년대초 출생자)를 저격했다. 기존 틀을 완전히 깨부신 채용 공고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채용광고는 처음 본다”며 “남초, 군대식 문화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 회사에서 웃긴 광고를 찍으니 친근하게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K리그1, 코리아컵, ACLE 3관왕 노린다!

K리그1 1위로 다시 올라선 울산 HD FC가 K리그1과 함께 코리아컵, ACLE 우승 정조준에 나섰다.

▼ 야고

울산 HD가 K리그1 역대급 순위 경쟁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울산은 지난 9월 13일(금)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선두 경쟁 팀인 강원FC를 2대 0으로 누르며 단독 1위로 우뚝 섰다. 지난 19라운드 이후 약 3개월 만에 선두 자리를 되찾은 울산은 일명 '왕좌'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있다. K리그에서는 통상적으로 3회 연속 우승을 이뤄낸 팀의 활약 기간을 '왕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울산 왕조'를 이룩하기 위해선 아직 조금 더 힘과 시간이 필요하다.

울산의 K리그 왕조 건설에 힘을 보탠 이는 바로 지난 8월 새로 부임한 김판곤 감독이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부임에 따라 시즌 중 바통을 이어 받은 김판곤 감독은 9월 26일(목) 기준 5승 2무 2패로 궤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 울산 HD는 K리그 1위 탈환, 4년 만의 코리아컵(구 FA컵) 진출이라는 호성적을 얻어냈다. K리그에서 첫 정식 감독이자 17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김판곤 감독은 라이벌 포항스틸러스를 5:4로 무찌르고, 최근 상대 전적이 부진한 광주FC를 상대로 리그 승리, 코리아컵 준결승 진출까지 이뤄냈기에 선수단과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제 무대인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도 드디어 막을 올렸다. 대회명도



▲ 아타루

포맷도 달라진 대회이기에 아시아 전역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ACLE 대회는 '엘리트', '2', '챌린지' 세 단계로 구분돼 운영된다. 기존 4개 팀이 1조로 구성돼 홈/어웨이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동/서 아시아 각 12개 팀 중 8개 팀이 16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각 조에 속한 팀과 홈/어웨이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팀과는 홈경기를, 다른 특정 팀과는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울산은 상하이 포트, 상하이 선화, 산둥 타이산(이상 중국),가와사키 프론타레, 요코하마 F.마리노스(이상 일본),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와 함께 그룹을 이뤄 본선 진출을 다투게 됐다. 지난 2020년 ACL 2020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두 번째 은색 별을 단 울산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글 강한 프로(울산 HD FC)

울산 HD,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홈·원정 경기 일정

VS 빗셀 고베	10월 23일(수)	울산종합운동장
VS 조호르 다룰 탁짐	11월 5일(화)	술탄이브라 힘스타디움
VS 상하이 하이강	11월 26일(화)	문수축구경기장
VS 상하이 선화	12월 4일(수)	상하이스타디움
VS 부리람 유나이티드	25년 2월 12일(수)	부리람스타디움
VS 산둥 타이산	25년 2월 19일(수)	문수축구경기장

신들린 건반 스미노 하야토, 11월 울산 내한 공연

현대예술관이 스타 연주자 스미노 하야토의
내한 리사이틀을 통해 관람객들의 귀호강 준비를 마쳤다.

전석 매진 신화, 공학도 피아니스트

일명 '공대오빠'로 불리며, 클래식 비전공자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세미파
이널리스트에 오른 '스미노 하야토'가 11월
29일(금)에 현대예술관을 찾는다.

그는 천재적인 음악성으로 클래식의 한계에
도전하며 일본을 필두로 전 세계 음악계에
피아노 열풍을 불렀다. 올해는 일본 전국 투
어 24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티켓 파워
를 입증했다.

이번 울산 공연에서는 바흐의 '이탈리아 협
주곡', '전주곡과 푸가 다장조',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1
번' 그리고 드뷔시의 '달빛'을 비롯해 스미노 하야토가 직접 작
곡한 '태동', '인간의 우주' 등 유려한 피아노 선율에 녹아든 독
창적인 음색과 그가 구축해온 예술 세계를 모두 엿볼 수 있다.
한편, 그는 누적 조회수 1.8억회 및 135만명 이상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버 'Cateen(카틴)'으로도 활동하며, 다방면으로
클래식을 알리고 있다.

선율의 마법사 '스미노 하야토'

스미노 하야토는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에게 3살 때 처음
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2018년 도쿄대학교 공과 대학원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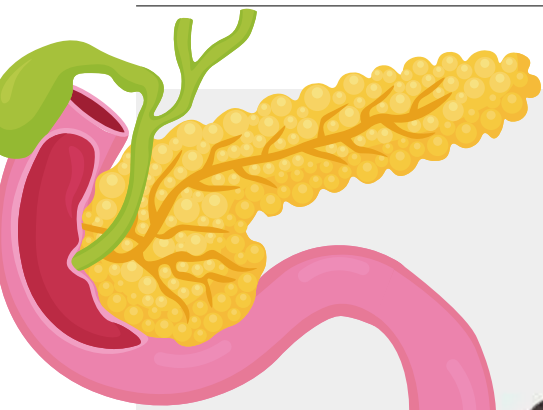


중 일본 PTNA(전일본교육자협회)피아노 콩
쿠르 특급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본격적인 음
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2019
년 리옹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2017년 아
시아 쇼팽 국제 콩쿠르 금메달 수상, 쇼팽 국
제 피아노 콩쿠르 세미 파이널 진출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이
다. 그가 음악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것은 연
주 실력만큼 훌륭한 작곡 능력에 있다. 하야토
는 2020년 발매한 첫 싱글 'HAYATOSM
(하야토즘)'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곡으로 클래식에서 쌓은
테크닉과 편곡, 재즈의 즉흥 기술이 잘 접목돼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공연일시 11월 29일(금) 20시
- 공연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티켓가격 R석 80,000원 / A석 65,000원/
B석 40,000원
(HBI 및 관계사 임직원 30~50% 할인)



난공불락 췌장암? 피할 수 있다!

췌장암은 '진단이 곧 사형선고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암이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췌장,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췌장암에 대해 알아본다.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췌장암의 국내 발병률은 2022년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신규 환자가 8천414명이다. 남자 4천324 명, 여자 4천90명으로 성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다.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이다. 그러나 초기의 증상이 애매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은 가슴골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명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복부의 좌우상하 어느 곳에서도 올 수 있다. 요통이 나타난다면 꽤 진행된 경우로 봐야한다.

황달도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인데, 황달이 생기면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이 된다. 대변의 색도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하고, 피부 가려움증, 피부와 눈의 흰자위 등이 누렇게 된다. 암으로 인해 췌장액이 줄어 지방 소화에 문제가 생겨 대변의 모양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때 변은 물 위에 뜨고 색은 얼어지며 기름져지고 변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위나 장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데도 막연한 소화 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암이 자라면서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소화액의 통로를 막기 때문이다. 암세포가 위장으로 퍼졌을 경우 식후 불편한 통증, 구역질, 구토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평소 체중에서 10% 이상이 줄어 들 수 있다. 암 때문에 체액 분비가 적어져 영양소 흡수 장애, 식욕 부진, 다른 부위로 전이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없던 당뇨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당뇨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당뇨는 췌장암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암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력이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췌장암을 알리는 위험신호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부통증



등통증



황달



체중감소



당뇨병

조기 발견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췌장암 환자 7만 8천여 명의 생존기간에 대한 대규모 추적 관찰을 실시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5.5개월에 불과하던 생존기간이 2010년대 후반에는 9.8개월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60세 미만 췌장암 환자의 경우는 생존기간이 열 달 늘었고, 80세 이상에서도 한 달 더 늘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술 가능한 범위가 넓어진데다, 표준 항암치료에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항암 주사가 도입된 영향이 크다.

췌장암도 일반적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다. 암 발생 부위를 포함해 주변 림프절까지 절제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췌장암 수술을 위해서는 암이 주위 혈관을 침범하지 않고, 간·폐로 원격전이가 되지 않은 1기 또는 2기여야 한다. 또, 수술이 가능해도 췌장 자체가 십이지장과 담도, 담낭, 비장 등 각종 장기에 둘러싸여 있어 암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췌장암 환자 3명 중 1명은 췌장암 진단을 여전히 '사망 선고'로 인식해 아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에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통해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암 크기를 줄여 수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미리부터 치료를 포기해선 안 된다.

피할 수 있다? 췌장암 예방법

췌장암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췌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또 흡연은 췌장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금연은 필수이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한다. 최근 비만이 고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육류 중심의 고지방-고칼로리 식사를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을 잘 지켜야 한다.

만성 췌장염도 위험도를 높인다. 치료를 잘 받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췌장암의 일부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 부모-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 이상 있거나, 발병 연령과 상관없이 두 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을 의심해 본인도 주의해야 한다.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자기관리와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 울산대학교병원 신철경 교수(혈액종양내과)

'성인아이'에서 '건강한 어른'으로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한 이번 여름.

선선한 가을바람이 무척이나 그리운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계절에 빗대곤 합니다.

새싹이 돌아나는 봄은 어린 시절, 녹음이 우거진 여름은 젊은 청춘,
낙엽이 떨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가을은 중년 세대로 비유합니다.

인생의 후반을 맞이하는 가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형은 '성인', 내면은 '아이'

우리는 스무 살이 되면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어엿한 성인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 발달단계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겉보기엔 '성인'이라도 내면에는 여전히 '아이'가 남아있는 '성인아이(Adult Children)'가 됩니다.

성인아이는 알코올 의존증 부모 밑에서 자라 성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차츰 그 의미가 확대돼 성인이 되어도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마마보이(Mama's Boy), 파파걸(Papa's girl)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 유년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정서적 경험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이 높거나 지나치게 엄격하다면,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 돈을 벌고 명예를 얻더라도, 초라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더욱 성공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성인아이는 자신보다 타인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지만 주위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생각, 느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주변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결정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만, 정작 그 의견을 신뢰하지 않는 모순적인 양상도 됩니다.

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인정과 사랑, 관심 등에 늘 목이 마릅니다. '어른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기규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자

신을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만을 쫓아다니며, 간혹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정과 연민 등의 관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인아이는 불안이나 두려움도 많습니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인해 몸에 이상은 없지만, 본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신체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이처럼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 다른 사람의 잘못이 확인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찰 통해 진정한 어른 되기

어떻게 하면 성인아이의 내면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훌륭한 스승, 친구, 연인, 배우자 등을 통해 마음 속 아이를 성장시키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용기만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쫄쫄, 한심하다' 등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은 없으며, 인간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고 이를 통해 배워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만족이 매우 강한 성인아이들은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자주 냅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무섭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구가 완벽히 충족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간혹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막연한 느낌을 갖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성인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처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내면의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아직 덜 자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인은 성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눈에 보이는 업적 중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올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자라게 해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을의 수확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글 김주 상담사(HD현대미포 마음정원)

참고도서 <남자의 후반전>, <50대 남자를 위한 심리학>

“이젠 정우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

몽골에서 온 코코씨와 한국인 기영씨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 정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그들.

하지만 그 평온은 하늘도 무심하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 이어진 아들의 병. 견뎌야만 하는 고통의 무게 속에서, 코코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누구보다 행복했던 세 가족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줄곧 혼자였던 기영(가명) 씨는 몽골에서 온 코코씨(가명, 47세)를 만나 2009년 결혼의 결실을 맺었다. 형제자매가 없던 기영씨에게 코코씨는 유일하고 소중한 가족이 됐다. 그렇게 둘은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2010년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정우(가명, 14세)가 태어났다.

기영씨는 정우가 태어난 것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기영씨는 코코씨에게 “이 세상에 정우를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들 정우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듬뿍 사랑을 줬다. 또, “알뜰히 살아야 한다”면서도 정우에게는 아낌없이 장난감과 옷을 사주는 모습에 코코씨는 가끔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영씨가 좋았다.

기영씨가 열심히 돈을 벌고 코코씨는 정우를 키우며 집안일을

부지런히 챙겼다. 코코씨는 정우가 빠르게 커 갈 무렵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갔다. 처음 시작한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다. 코코씨는 식당 일, 입주청소 아르바이트 등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고, 그로 인해 아쉬운 말들도 많이 들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고된 하루가 싹 날아간 듯 위로가 됐다.

갑작스러운 이별, 젖어드는 불행

정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오던 중, 기영씨는 종종 속이 안 좋고 위가 아프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영씨의 피부와 손발톱, 눈 등 온몸이 갑자기 노랗게 변해 병원을 찾았다. “당남압입니다.” 기영씨의 CT 검사 결과는 이미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 결국 암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어린 정우는 “아빠랑 홈플러스 가자”며 한동안 아버지를 찾았다.

누구보다 슬펐던 코코씨지만 가장으로서 정우를 두고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후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일만 했다. 높은 업무 강도에 허리에 무리가 가며 코코씨는 결국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용과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수술마저 포기했다. 옆친 데 덮친 격, 코로나 사태가 터지곤 그마저 해오던 일도 줄기 시작해 경제적 어려움은 배로 커져만 갔다.

하늘이 무너지다, 코로나에 걸린 정우

끝이 없던 불행이 정점을 찍었다. 2023년 중학교 입학할 준비하던 정우가 갑자기 혈변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코코씨는 놀란 마음에 정우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집 근처 병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당시 코코씨는 병원비 낼 돈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 생각에 망설임 없이 큰 병원으로 향했다. 길고 긴 검사 끝에 정우는 크론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정우는 평소와는 다른 생활을 해야 했다. 햄버거를 가장 좋아했던 정우지만 식이 조절이 필요해져 못 먹는 음식이 훨씬 많아졌다. 특히 친구들과 모여 편의점에서 용돈으로 컵라면을



사먹는 것도 이젠 어려워졌다. 그렇게 친구들 틈에서 늘 쾌활했던 정우는 조금씩 웃음을 잃어갔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정해진 약을 꼭 챙겨먹어야 하는 몸이 됐다. 코코씨는 정우가 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매일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빠지지 않게 약을 챙긴다. 병원에서는 정우가 추가로 마셔야 하는 단백질 음료와 비타민류도 추천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은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매달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각종 비용에 코코씨의 걱정은 쌓여만 간다. 그럼에도 코코씨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근에는 보다 안정적인 일 자리를 찾고자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등록했다. 학원비조차 아까운 코코씨는 누구보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빠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생의 꽃은 시련 뒤에 피어난다고 했던가? 때로는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으스러질 것 같지만, 함께 이겨내는 힘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오늘도 코코씨는 정우와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 HD현대와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 정책을 준수합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과 모자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도움계좌

농협중앙회 79012914604322(예금주: 어린이재단)

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 052)275-3456

"가을이 익어가는 시간을 따라"

충북 영동 산골마을 여행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 가고, 자연의 풍경이 아름답게 채색되는 계절, 가을이 왔다.
 굽이굽이 산줄기들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단풍에 물든 계곡을 따라 맑은 물이 영롱하게 흐르는 곳.
 충북 영동은 가을에 물든 청정한 자연과 순박한 산골마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이다.
 사진, 등산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월류봉부터 백화산, 민주지산, 도마령 고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 덜 닿은 이곳, 영동의 비경 속으로 떠나본다.

달이 머무르는 그림 같은 산봉우리

항간C를 지나 한가로운 국도를 따라 조금만 달리면 바로 월류봉(月留峯)을 만날 수 있다. 충북 영동군 항간면 원촌리에 있는 높이 400미터의 산봉우리다. 월류봉은 병풍 같은 산세와 계곡, 그 아래로 흐르는 초강천(草江川) 강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의 달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물다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월류봉의 빼어난 여덟 경승지는 '한천팔경(寒泉八景)'이

라고 부르는데, 월류봉을 비롯해 산양벽, 청학굴, 용연대, 냉천정, 법존암, 사군봉, 화현악의 8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천팔경의 제1경인 월류봉은 400미터 높이의 봉우리이다. 산양벽(山羊壁)은 월류봉의 가파른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를 일컫는데, 깎아지른 절벽산인 월류봉 아래로 물 맑은 초강천 상류가 휘감아 흘러 수려한 풍경을 이룬다.

한천팔경 중 꼭 가봐야 하는 곳은 용연대다. 용이 사는 연못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용연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월류봉의



월류봉

구불구불한 산봉우리들이 비쳐서 마치 꿈틀대는 용 한 마리가 가만히 물 아래 숨어 있는 듯하다. 용연대 맞은편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듯한 정자 '월류정'이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자리 잡고 있다.

무성한 숲 때문인지 가을이 깊었는데도 월류봉은 초록빛이 가득하다. 어디선가 불어온 가을바람이 산자락을 따라 부드럽게 불어가고, 그 바람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라보는 월류봉의 자태는 도도하면서도 아름답기만 하다. 여행자들이 월류봉



▲ 한천정사

에게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발을 묶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암 송시열의 뜻이 서린 공간

월류봉이 한눈에 보이는 맞은 편 도로 한 모퉁이에 단아한 기품이 서린 한천정사(寒泉精舍)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조선의 대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 우암 송시열이 잠시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송시열은 조선 후기 정치와 사상계를 호령했던 인물로, 조선을 '송시열의 나라'라고 일컬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다. 특히 북벌에 뜻이 깊었던 효종의 총애와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던 그는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과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했다.

그는 월류봉 앞에 한천정사를 짓고 북벌계획을 구상하며 강학에 힘을 기울였다. 우암이 죽고 난 후 우암의 제사를 모시는 이들이 한천서원을 세웠으나, 서원은 고종 5년(1868)에 철폐됐다. 후에 그의 뜻을 기리는 유림들이 1910년에 다시 지은 건물 이 바로 한천정사다.

작은 대문과 대청마루, 온돌방,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 그리고 정사를 둘러싼 낮은 담장은 아담하기만 하다. 대학자가 머물렀던 공간이라기에는 너무나 소박해서 더욱 인상적이다.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교훈이 아닐까.

반야사와 만경대의 가을 비경

월류봉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발 933m 높이의 백화산은 충북 영동과 경북 상주의 경계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이다. 특히 기암 괴석과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풍경을 자랑한다. 가을이면 백화산 자락을 따라 울긋불긋 단풍이 갈색,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의 잔치를 벌인다.

백화산 남쪽 기슭에는 서기 851년 무염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반야사가 있다. 반야사라는 이름은 세종대왕이 문수동자를 만나 병이 나은 것에 감격해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반야를 어필로 하사한데서 비롯됐다.

반야사 삼층석탑은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유행했던 단층 기단형 삼층석탑 양식을 따랐으며 보물 1371호로 지정돼 있다. 극락전 앞에는 500년 수령의 배롱나무 두 그루가 다정하게 서 있다. 가을 산중 반야사도 아름답지만, 왼쪽으로 석천을 끼고 있는 계곡 오솔길은 고즈넉하고 평온하다. 그 오솔길을 따라 걷

다보면 깎아지른 100여 미터 절벽 꼭대기에 문수전이 있다.

절벽을 올라 산 속 오솔길을 부지런히 걷다가 마주치게 되는 백화산 자락과 석천은 풍광이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와 같다. 월류봉에서 반야사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은 등산애호가와 여행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총길이 8.4km 코스로 1코스 여울 소리길, 2코스 산새 소리길, 3코스 풍경 소리길 등 정겨운 이름의 3개의 코스로 구성돼 있다.

민주지산 숲과 영화 '집으로'의 배경

백화산을 뒤로 하고 민주지산 휴양림에 이르면 또 다른 풍경이 이어진다. 충북의 최남단인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에 자리한 이곳은 소백산맥의 줄기인 민주지산에 둘러싸여 사계절 숲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해발 800미터의 도마령은 영동군 횡간에서 전북 무주로 넘어가는 고갯길인데, 도마령 이름의 유래는 '말을 키우던 마을', 혹은 '칼 찬 장수가 말을 타고 넘던 고개'

▼ 백화산





▲ 민주지산+도마령고개

라고 전해져온다. 도마령을 중심으로 1천여 미터 안팎으로는 천만산, 각호산, 민주지산 등이 도열해 있다.

영화 '집으로'의 첫 장면에서 시골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길이 바로 도마령이다. 도마령 고개 정상에 있는 정자, 상용정에 오르면 구불구불 올라왔던 고갯길과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너머 아스라이 첩첩 산들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높이가 다른 병풍을 세워놓은 것처럼 자연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산 등성이 선들과 명암의 변화,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빛내림은 신령스럽기만 하다. 도마령 정상에서 상촌면 조동으로 내려가는 구불구불한 곡선의 길을 보노라면 자연의 산세와 인간의 길이 만들어내는 묘한 조화로움에 감탄사가 흘러나온다.

표고버섯과 포도가 익어가는 마을

도마령 고개를 넘어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내려가면 아름다운 산촌마을 상촌면 조동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표고버섯 재배지로 지금도 버섯농장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곳이다.

조동을 지나 국도를 따라 여유롭게 달리다 보면 용화면 월전리

의 포도밭들이 나타난다. 처마에서 대청마루 위로 길게 내걸린 꽃감들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가을 햇살은 그 꽃감을 더욱 붉게 물들이며 한참을 머무른다.

올해의 마지막 포도를 수확한 농부의 표정은 이제는 담담하다. 낮선 여행자를 보더니 포도 몇 송이를 주저 없이 내어주는 인심이 정겹다. 시들은 포도 이파리들이 아직 주렁주렁 매달린 싱싱한 포도송이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식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서 마음이 울컥한다. 가을은 조용히 사색하며 바쁜 마음에 잠시 심표를 짚을 수 있는 계절이 아닐까. 월류봉에서 시작해 국도를 따라 거닐다 보면 어느 덧 백화산의 눈부신 가을 풍경에 젖어든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HD현대 사우들도 분주한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올 가을 영동 지역에서 잠들어 있던 다양한 감각들을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글&사진 백상현 여행 작가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1 Again 2004년

꿈인지 현실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인중현, 2004년 신입사원으로 돌아가 첫 번째 미션을 부여받는다.

부족한 도크에 밀리는 공정, 머리를 스치는 육상건조. 무사히 미션에 성공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2 서로에 대한 존중

인중현의 머릿 속을 스친 해결방안, '텐덤침수공법'. 하지만 촉박한 일정, 혼자서 설득하기엔 충분치 않은 시간.

과거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 아쉽게 기한을 놓친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엔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미션 해결에 나선다.







더할 나위 없는 여름이었다!



유재현 매니저(HD현대일렉트릭 ESS사업부)

외가 가족들과 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기 전 찍은 사진입니다. 누나의 남자친구를 외가 가족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라 약간 어색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즐겁게 시간 보내준 누나 남자친구분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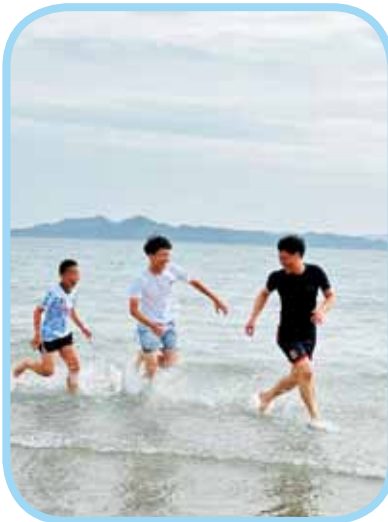
서문대성 선임매니저(HD현대미포 선체조립부)

우리 엄마 환갑 기념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의 선셋



양승용 기장(HD현대미포 조달1부)

분수대에서 시원함을 만끽하는 우리 막내공주님



진선민 반장(HD현대삼호 TQC팀)

여름은 바다지~ 나 잡아봐라~~



이상민 책임엔지니어
(HD현대엔터티 건설기계설계부)

Best season for Kids♥

올 여름 뜻 깊은 휴가기간을 보낸 HD현대 사우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만나보자!



최성진 계장
(HD현대오일뱅크 HOU1팀)

무더운 여름날 채석강 격포 앞 바다서
대왕 문어를 잡다!



조상배 책임매니저
(HD현대사이트솔루션 인증규제팀)

이번 여름 휴가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
하고 준비하던 중 결혼 3주년을 맞아 기
다리고 기다리던 소중한 천사가 찾아왔
습니다.
아기의 태명 '태리' 따라 이태리 여행~



전재혁 책임매니저
(HD현대중공업 조선안전부)

베트남 나트랑 사막 투어 중 찍은 사진
입니다. 모래 언덕과 맑은 하늘을 배경
으로, 아들의 에너지 파워를 받아 보았
습니다.



신동준 선임매니저(HD현대삼호 기술정보과)

북두칠성이 가장 잘 보이는 스팟에서 찍은 꿈 사진입니다 :)
날씨도 너무 좋아서 럭키비키한 하루였어요.
'24년 하반기도 HD현대 파이팅!



윤현종 책임매니저(HD현대건설기계 생산관리부)

코로나 이후 팀 단합대회^^ MZ세대의 적극 동참ㅠㅠ
요즘 보기 힘든 우리들만의 추억 만들기

나의 사랑하는 스리랑카 학생들



김은정
HD현대중공업
한국어 강사

2016년 가을 스리랑카에 가 본 적이 있다. 수도 콜롬보와 초록의 차밭이 드넓게 펼쳐진 누와라 엘리아를 여행하며 처음 와 본 스리랑카의 매력에 빠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선한 눈빛이었다. 호텔에서 혹은 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선한 눈빛은 이방인의 마음을 푸근하게 했고 그 후로도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8년 뒤, 나는 스리랑카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다. 방송사와 잡지사에서 작가와 기자로 일 해왔던 나는 한국어 강사라는 새로운 일에도 전하게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땀고, HD현대중공업 강사에 지원 후 합격해서 한국어 강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 2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간 순간, 난 7년 전 보았던 스리랑카인들의 선한 눈빛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그래서일까? 나의 새로운 도전에 첫 학생으로 나타난 29명의 학생들이 왠지 정이 갔다.

ㄱ, ㄴ, ㄷ, ㄹ... 1, 2, 3, 4... 한글 자음, 모음 기초부터 배우는 수업을 시작하는데 초보 강사인 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자!”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종종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 감사합

니다”라며 해맑은 미소로 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학생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라고 번역 앱을 통해 한국어로 보여주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 쉬는 시간마다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타향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가 송고하게까지 느껴졌다. 이는 곧 나에겐 막중한 책임감으로 돌아왔다. 적어도 내가 맡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뉴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를 잘 몰라 기계의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팔을 크게 다쳤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는 단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매개인 것이다.

지난 학기 마지막 수업 날에는 여느 때처럼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내 앞에 와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한 명 한 명 그렇게 인사를 했다. 이것이 스리랑카에선 최고의 예우라고 한다. 학생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다. 학생들 덕분에 한국어 강사로서 너무나 부듯하고 행복했고, 이들 모두가 꼭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제 또 2학기 수업이 끝난다. 난 벌써부터 수업 시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낮이 제법 익은 학생들과 나누던 인사가 그리워질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유 보완?”



“감사합니다, HD현대삼호”

우리 부부는 얼마 전 회사에서 마련해준 입사 20주년 기념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에 참가했다. 입사한 지도 어느새 20년이 지난 터라 참가자 대부분이 40세 이상 부부였다. 덕분이었을까? 우리는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마음을 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준 회사의 배려와 20년 이상 근무해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여행이라 생각했다.

남편은 2003년 기술교육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입사했다. 교육기간 입사 기회를 놓칠까 술도 자제하고, 행동도 조심하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다. 남편이 교육받던 시기에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당시 외주업체(경비)에서 근무하던 남편에게는 조선사 입사가 꿈이었다. 언제나 그 목표만을 향해 달리다 기술교육원에서 교육 기회가 왔고, 임신 중인 나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당시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렵게 교육 기회를 얻어 낸 남편에게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냐”며 혼자서 돈 벌어도 절박하고 알뜰히 살면 우리 가정 충분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혼쾌히 도전하라고 말해줬다. 남편은 교육원을 나와도 다 입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으나 그래도 기술을 가르쳐 주는 회사가 얼마나 고맙냐며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고 남편을 다독였다. 남편은 출퇴근 때 사고가 나면 안 됐기에 교육기간 동안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고, 나는 그해 4월 둘째를 출산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남편의 최종 입사가 결정됐을 때는 서로 안고 펄펄 울었다. 그날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애들은 성인이 됐고, 아이들 걱정 없이 우리 부부끼리 여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었다.

같이 여행을 온 어떤 아내분이 이런 말을 했다. 목포에서, 영암에서 연봉 7~8천만 원이 넘는 회사가 어디 있다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대견스럽고 그런 연봉을 주는 회사도 고맙다고 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 공감이 갔다.

나는 예전 파견 근무로 회사 도크관 의무실에서 약 3년 간 근무한 적이 있다. 뜨거운 철판 사이에서 땀 흘리며 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하는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계속 생각났고, 회사의 다양한 혜택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여행 기간 중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움을 느끼며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서로의 소중함, 부부애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신혼부부처럼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어주려 했던 가이드, 비와 맑음이 반복되던 제주도 날씨와 그에 맞춰 다채롭게 변화한 풍경들, 맛있는 호텔 조식, 아름답게 핀 수국 사이를 거닐며 추억을 남긴 동료 부부들.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준 회사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한혜연 씨
HD현대삼호 전장21팀
박청훈 직장 아내



슬기로운 책임 생활



정건출 책임매니저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솔루션기술영업부

‘보아라 하늘높이 치솟는 꿈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HD현대중공업 사가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사가를 부르며 화합을 다지던 신입사원 시절로부터 어느덧 3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역, 그리고 기술자 책임’으로 남을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다. 책임급으로 직장생활을 한지는 26년차, 옛 직위였던 부장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기간만 해도 15년이 훌쩍 넘어선다. 긴 시절 동안 언제나 가슴 설레며 근무해온 ‘슬기로운 책임 생활’을 사우분들께 공유하고자 한다.

나의 30여년 직장 생활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보면 “변화 그리고 끈기”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서를 옮길 기회가 많지 않지만, 나는 5년에서 10년마다 부서를 옮겼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타의가 아닌, 스스로 자원해 부서를 옮겼다. 입사는 HD현대중공업 종합설계부였다. 이후, 신규 기술 도입을 위한 CAD개발부에서도 근무했고, 가스선 기본설계부에서 기본계획업무도 경험했으며, 건적 PM(Project Manager) 역할을 거쳐 사우디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솔루션 부문에서 선박 개조사업 총괄 PM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니 참 역동적으로 살아온 것 같다.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맡아온 덕분인지 30

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 당시만 해도 부서를 옮기는 일이 흔하지 않다 보니 주변의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울 뿐, 한번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덩수룩하고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없다고 한다. 항상 기회에 대비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덩석 잡을 수 있다.

단, ‘기술자 책임’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해당 분야에서 5년에서 10년은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후 변화에 도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자신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끈기를 가지는 것이다. 내가 끈기를 발휘한 방법은 자격증 취득이었다. 종합설계부에서 CAD개발부로 옮긴 후에는 ‘조선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10년 동안의 설계 경험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규 CAD 도입을 마무리할 즈음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기본설계 건적 PM 업무를 거친 후에는 국제 자격증인 ‘CAPM(Certified Associated in Project Management)’을 취득했다. 사우디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또, 최근 발간한 ‘정건출, 조선 기술사로 살다’라는 책을 포함해 나만의 흔적 남기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회사 새로운 분야에서 여전히 가슴 설레는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단련해 온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후배님들이 변화를 즐기는 마음으로 슬기롭고 설렘 가득한 직장 생활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건출 책임의 신간, 「정건출, 조선기술사로 살다」

정건출 책임은 이 책에 30여 년간 HD현대 그룹에서 조선 기술사로서 경력을 쌓으며 겪은 다양한 도전과 성취,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담았다.

조선기술사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 가슴 설레는 직장 생활을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인생 멘토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 01 HD현대는 'OOOOOOOO'의 출범을 통해 친환경 엔진 설계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02 'OOOOOOOO'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재단으로,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족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법률 구조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 03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OOOOOOOO'에 직원 3명이 출전해 금·은·동메달을 획득했다.



퀴즈 응모 방법

퀴즈의 정답을 **11월 29일(금)**까지 **QR코드(또는 하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zPDLGVwJnfrDbazt6>)

※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유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2024년 여름호 퀴즈 당첨자 선정



치킨 기프티콘(2만원권)

문현진	HD현대로보틱스 경영기획팀
강동훈	아비커스 품질팀
김준열	HD현대이엔티 미포품질검사부
김지협	HD현대중공업 친환경시스템설계부
이종준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설계부
안진수	HD현대마린솔루션 KAM영업2부
권진경	HD현대미포 조달2부
김서진	HD한국조선해양 EP사업운영과
정동규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2부
김대성	HD현대사이트솔루션 ICFR팀



커피 기프티콘(1만원권)

이정관	HD현대삼호 도장·의장혁신과
신석일	HD현대미포 전장시스템설계부
정필상	HD현대미포 조달1부
윤정현	HD한국조선해양 디지털플랫폼연구실
이태협	HD현대인프라코어 자금파트
박대용	HD현대미포 선장부
홍순혁	HD현대이엔티 현중품질검사부
차경호	HD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이종현	HD현대중공업 해양프로세스기계설계부
최솔	HD현대중공업 특수선품질경영부
이주은	HD현대건설기계 GCM2팀
김연경	HD현대삼호 전략기획과
윤수아	HD현대마린솔루션 디지털제어설계부
진무송	HD현대일렉트릭 품질관리1부
최요환	에이치엔아이엑스
은선경	HD현대중공업 SHENANDOAH PM
배정민	HD현대건설기계 전략구매팀
전세계	HD현대중공업 안전알람TF
허준석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계제관구매팀
제경화	대진이엔지(주)



HD현대오일뱅크



카젠

고급을 넘어 **고성능**으로

KAZEN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고 카레이싱 대회에 수년간 공식 연료를 공급하는 등 고급휘발유 '카젠'의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최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급을 넘어 **고성능**으로」HD현대오일뱅크는 업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종합 에너지기업이 되겠습니다.